

왜 우란분절인가

가령 누군가 글을 이렇게 시작 했다. "세상 인상은 날로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가치관은 혼란에 빠져 가정은 붕괴위기에 있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독자는 "새삼스레 무슨..." 하면서 읽을 생각도 않고 외면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이런 서투 뒤에 반드시 따라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복고주의 '성현들 말씀'이 그다지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등의 전(前)세대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글이 나오면 차라리 솔깃해 한다.

몇년전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초중등생의 도덕 교육 교재로 쓰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이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다. <명심보감>의 논리에는 오늘날에 필요한 가치관,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시민사회, 평등의 실현에 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고 더욱이 비판정신을 높이 사야 하는 그런 시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명심보감식 도덕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적은 백 번 옳다.

그뿐만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시장의 논리를 마치 성전처럼 신봉하고 있다. "개인의 사익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회전체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이므로..."라는 시장논리의 핵심은 개인의 끝없는 사익추구와 적자생존의 정경법칙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 준다. 나 아닌 남을, 그리고 부분 아닌 전체를 생각해야만 성립되는 도덕개념이 여기에 거머잡혀 들은 없다.

현대과학이 말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이기의 극대화라고나 할까. 과학자들은 사람을 단순히 '유전자'라는 이기적인 본능을 보존키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돼 있는 움직이는 로봇, 일종의 생존기계로 설명한다. 동물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인간은 가장 뛰어난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가장 이기적인 동물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오늘에 와서야 발견된 것일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든가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등의 속담이나 이를 이야기로 꾸민 민담 설화들의 밑바탕에는 이미 냉혹한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한 근원적인 관찰이 깔려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기적인 유전자'의 광복한 질주에 제동을 걸어온 옛 성현(聖賢)들의 뛰어난 가르침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김정자 <칼럼니스트·본지는설위원>

“세상만물을 부모처럼 위하는 평등심 새기자”

부처님이 가르치신 효(孝) 또한 현대라 해서 빛을 잃을 종류가 아니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제도한 날이지만 (부모은중경)에서 부처님이 길거리에 쌓인 해골더미에 절하면서 가르치신 것은 그 뼈들이 과거다생의 부모였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 어느 한가진들 나의 다생부모와 무관한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우란분절을 기리는 것은 이생 부모에 대한 '효'도 그러하지만 세상만물 모두를 부모처럼 위하고 그 은의를 깊이 새기려는 넓은 의미에서의 '효'다. 그 평등심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화론은 연기론에 포함”

美 캔자스주 과학교과서 '진화론' 삭제 국내 기독교계 창조과학교사련 창립

진화론이 창조론이다. 지난 11일 미국 캔자스주 교육위원회가 과학교과 과정에서 진화론을 제외시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독교계도 세계 각국의 진화론 교육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지난 9일 창립된 창조과학연구교사연합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소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영국 과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지 140여년이 지났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계속돼 왔다. 특히 보수적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창조론 그룹과 진화론 그룹간의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극우보수파 기독교계는 끊임없이 정치와 교육에 영향력 확대를 꾀해왔고, 이번 캔자스의 결정도 한 보수적 기독교 단체가 맹렬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미기독교생물교사협회와 미국의 종교감시단체인 '정보분리를 위한 미국인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적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논란이 국내에서 재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진화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태에서 창조론이 옳다는 주장은 학문의 보편성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듯이 창조론도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초기에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 종교재판에 회부돼 파문당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파문당하지 340여년간인 1992년에 복권됐다. 지구가 돈다는 진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황 바오로 2세는 96년에 진화론을 '진정한 가설'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불교는 우주와 인간의 태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불교는 역사 이래로 진화론이나 창조론 어느 쪽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 어떻게 생겨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불교는 연기론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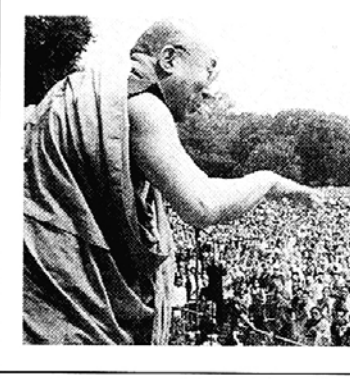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불교는 창조주와 같은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업력'이라는 에너지의 작용에 따른 연기론으로 보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과학사상> 편집장인 김용정 명예교수(동국대 철학)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그 구조 속에서 각각의 생명체에 또 다른 생명이 발생한다는 연기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론은 연기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생명태동의 근원을 연기론에 의해 스스로를 조직한 '자기조직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성규교수(영남대 의대)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명태동의 근원은 연기론으로 보는 것이 옳다"면서 "연기론=존재론+진화론+창조론"이라는 공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 학자는 "확실한 입증은 없기까지는 어떤 가설도 배제해서는 안되며, 특히 초과학을 지향하는 종교가 비과학적이 된다면 종교와 과학의 선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뉴욕강연회

미국을 방문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5일 뉴욕시 센트럴파크에서 4만여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강연회를 열고 평화와 인내, 비폭력 등에 대해 설교했다.

정부 '부패방지 기본법' 연내 제정

앞으로는 1천명(시·군 지역은 5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시민 감사청구제'가 실시되며,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내달중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 '부패방지종합대책'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본보 제232호 18면 참조>

'부패방지종합대책'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비리고발자 보호 및 보상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부패공직자 취업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로 물러난 공무원은 면직후 15년 또는 형집행정지후 10년간 공직에 재취업하지 못하며, 내부비리를 신고한 고발자나 고발기관을 비밀보호는 물론 비리고발에 따른 정부 수입금(추징·불수액)의 5~15%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02년-화석연료시대 마감
2004년-복제인간 첫 탄생
2009년-북한서 원자탄 폭발

미래학자 클라크 예측

21세기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계적인 우주과학 소설가이자 미래학자인 아서 클라크가 아시아 위크 최근호에서 새 밀레니엄 첫 1백년 동안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들에 관해 기고, 관심을 끌고 있다. 클라크는 50년전에 위성통신의 실용화를 내다보았을 뿐만 아니라 10년전에 Y2K 문제를 예측한 인물.

클라크가 예측한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2002년=저온 상태하의 핵반응을 이용한 최첨단 동력장치의 개발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 예고됨 △2004년=관련당국의 공식 허가아래 복제인간이 최초로 탄생 △2005년=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금의환향할 △2009년=북한에서 원자탄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비상소집된 유엔안보리에서 모든 핵무기를 폐기키로 결의 △2012년=우주여행의 상업적 서비스가 개시됨 △2021년=유인우주선이 화성에 첫 착륙

생활정보

수도권 공원 예식장 개방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 야외전시장 등을 야외결혼식장으로 개방 인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는 중앙공원내 광장 등 6곳을(0342-729-5704), 하남시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야외잔디밭 등을 이용할 수 있다.(0347-791-1524) 고양시는 호수공원내 마련된 야외결혼식장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0344-906-4557)

무궁화 꽃길 10곳 조성

서울시는 광화문 열린마당, 종각 등 10곳에 무궁화 꽃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궁화 꽃길이 조성되는 곳은 광화문 일대, 종각,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등으로 31일까지 모두 1천700개의 무궁화 화분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염병 인터넷 정보망' 개통

국립보건원은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전염병 인터넷 정보망'을 13일 개통했다. 전염병 정보망홈페이지(http://dis.mohw.go.kr)는 계절별 유행 전염병 정보, 해외전염병 발생 현황 및 여행자 정보, 전염병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등 전염병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1369'로 수표조회 하세요

금융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1369'번으로 전화하면 사고수표 조회 및 신고·당회거래정지(부도) 여부·예금잔액·무통장거래내역·신용카드거래내역·환율정보 등 각종 금융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면부족 위계양·위암 유발

수면부족이 위계양이나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12일 나왔다. 홍콩대학 약학과 연구진이 수면과 위의 건강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7일간의 수면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한 쥐들에게서는 위벽에 정상세포를 종양세포로 전환시키는 증양 형성 유전자가 나타났다.

'건전기정리예준칙' 제정안

보건복지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절차, 기준 등을 규정 한 '건전기정리예준칙' 제정안을 12일 마련했다. 이 제정안은 약혼식 직제가 폭탄 참석해 상견례로 간소화하고 혼수시 예를 증여대상은 당사자 부모로 한정했다. 제사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했으며, 신문에 부을 게재 시 공공기관·단체명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직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선식(2개월 50만원), 순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붉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민반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만복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크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들' 성분 대량추출

다. 세시미들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작량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증명. 저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